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6679 |
|----------|------|

발의연월일 : 2024. 12. 18.

발 의 자 : 이만희 · 강선영 · 이달희
서천호 · 김기웅 · 권성동
권영진 · 김정재 · 구자근
박형수 · 정점식 · 조은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분리조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출동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따른 민·형사상 등 책임의 부담으로 피해아동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조사 등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의5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제11조에 따른 현장출동이나,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업무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u>제10조의5(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1조에 따른 현장출동이나,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업무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u> |